

함께 드리는 대림절 기도문 2

- 기다리는 사람 -

2020년 12월 27일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린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방식에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큰 꿈을 꾸며 끊임없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림절은 오직 영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고 불완전해져야 함을 압니다. 그들은 더욱 위대한 무엇이 도래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겸손히 두려워하며 기다립니다. (“1928년 12월 2일 대림절 설교” 中)

초겨울입니다. 나무들은 그토록 화사하던 잎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대림절에 들어선 지금은 비움의 계절입니다.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들판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쓸쓸하게 텅 비어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절기는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초목들은 눈앞에 다가온 겨울 너머에 있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이미 까맣고 아주 작은 씨눈이 맺혀 있지요. 그 작고 작은 씨눈이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어 낼 것입니다. 봄이 올 것이 분명하기에, 나무들은 씨눈을 품고 기다립니다. 비우는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했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시간은 저녁을 시작으로 삼습니다. 흔히 저녁을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서는 저녁을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되지만, 그 밤을 견디어 내어 마침내 아침을 맞게 됩니다. 하루는 벌써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워지는 때는 포기하고 끝낼 때가 아니라 희망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율법학자들과 대사제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헤롯의 궁전에서 지내는 축제의 절기가 아닙니다. 광야와 들판, 쫓겨난 사람들의 장소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어둠을 뚫고 마침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 숨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울 때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어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¹⁾

1) 책 : 본회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 (대림절묵상집)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출간일 : 2017.11.5. / 12~13쪽